

2016년 12월 20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
 김춘옥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[제보자] 한동 하르방인디 옛날은 학교가 었어가지고 덕천을 이제 한문 배우레 서당이, 덕천에 잇었어. 한동 하르방이 덕천을 가는데 억센 하르부지라, 틀도 좋고 막 억세니깐 이젠, 이제 밤이 무섭지도 안 혀그네 막 구신이 쳐 날 땀디, 걸어가노렌 헤네 어떤 구신이 나타나가지고 풀장 딱 끼고 헤네.

“어 너 구신으로구나. 너 도깨비로구나.”

영 행, 도깨비가 꼭 원숭이 닮아렌. 경 허난 이젠 그 사름이 이젠 덕천 간 공부헤여네 이젠 경 허난에 행원 간 지네 친구덜한테 이렇게 말헐어.

“야 나 도깨비 봤저.”

“야, 도깨비 어떻 헤니?”

“어떻 허난 꼭 원숭이 닮더라. 너네 도깨비 볼레? 나 데령 오마.”

그 하르방이 이젠 혼 번은 이젠 덕천 간 공부헤네 올 때 또 도깨비가 나타나렌

“야, 나영 곶이 갈 디 잇저.”

“가크라. 곶이 가크라.”

영 헐, 도깨비가 말헐, 이젠 행원을 돌안 간 배우난

“이것이 바로 도깨비여.”

경허난

“아이고야, 원숭이 닮다이 원숭이 닮다이. 원숭이 닮다 원숭이 닮다.”

헌디, 그 동네 사름이 막 그냥이 도깨비 구신이 모신 사름이 막 부제가 댜 거라. 부자가 부자가 막 댜엔. 바다에 베헉곡 허는 사름인디 부자가 댜엇는디 이젠 그 사름이 이젠 혼 번은 이젠 부자 댜는디. 그냥 모섯이민 좋을 건디 여자가 무신 그런 구신을 뭐 믿었이니 신랑한테 치우라고 경 헌디 벌써 치원 앓아난이. 그 집이 벌써 도깨비가 강 불 부껴비엔, 그 집이 복삭 망헤 빗덴.

도깨비 구신양 모시민 잘 댜덴 행 도깨비 모섯는디 막 부자가 댜분 거라. 부자 댜는데 뭐 그냥 그 친구로 도깨비 모션 막 부자는댜는데 막 그냥 각시가 각시가 털언

“뭘 놔 구신이 잇느냐?”

고 경 헐는디 그 부자도 이젠 도망가 불곡 막 기냥이 못 살안 망헤 빗덴. 불을 오꼴 도깨비가 강 불을 부껴 비엔 집을. 잘사는 집을 강.

- 핵심어 : 도깨비, 구좌읍 덕천리, 원숭이, 친구, 각시, 불, 구신